DS INVESTMENT & SECURITIES



매주 태호의 방산 Weekly

2026.11.09

강태호 방산 / kth@ds-sec.co.kr

방산 3Q 실적 마무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 방산 5사 3Q 총평: 환율 민감도를 확인한 분기

- 11월 6일 LIG D&A를 끝으로 커버리지 방산 5사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됨. 연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화시스템과 KAI는 컨센서스를 상회, 현대로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하회
- 5사 모두 공통적으로 환율을 언급했고 하회 기업들은 환율 하락을 주요 원인으로 꼽음. LIG D&A는 수출 마진이 5%p 하락했다고 밝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가장 컸으나 환율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 반면 한국항공우주는 환율 하락의 수혜를 봄. 완제기 수출의 대부분인 FA-50 사업(말레이시아 1,525억원, 폴란드 899억원, 필리핀 141억원)은 달러 원가 비중이 높음. 상반기 하이 싱글 수준이던 GPM이 이번 분기 20%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됨. 진행률 기준 프로젝트 마진 재평가 효과는 약 400억원으로 추정. 다만 기체부품 사업부 GPM은 상반기 20% 초반에서 10% 후반으로 하락 추정
- 3Q 평균 환율은 1,418원/달러, 11월 6일 기준은 1,364원/달러로 3.8% 추가 하락한 상태. 진행률·인도 기준 등 기업별 인식 방식은 다르지만 4Q에도 환율발 마진 변동이 이어질 수 있음. 환율이 추가 하락하면 KAI 완제기 수출은 우호적이고, LIG D&A·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화시스템과 KAI 기체부품에는 부담

▪ 실적은 아쉬웠지만 수주 파이프라인은 재확인

- 긍정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많았던 분기였으나 일부 기업들이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톤을 유지한 것은 희망적
- 한국항공우주: 3Q 누적 기준 수주 목표(10.4조원) 달성률 21%에도 불구하고 수주 가이던스를 유지. 3Q 1.45조원의 미공개 완제기 수출 수주에 성공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 KF-21 첫 수출(4조원 예상), FA-50(1조원 이상 예상) 추가 수출, 국내 LAH 3차 양산(약 3조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
- LIG D&A: 4Q 말 수주잔고 가이던스로 28조원을 제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국내 수주를 감안해도 3~4조원 이상의 수출 수주가 필요한 수준. 당사는 연내 카타르·쿠웨이트 천궁-Ⅱ(각 약 1.5조원) 수주가 유효하다고 보며, 27년에도 기타 중동국과 동남아향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고 판단
- 한화시스템: 방산 수주 가이던스로 수출과 우주 사업 관련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20% 성장(약 11조원)을 제시하였으며 신규 수주로는 약 4조원 수준. 한화시스템은 UAE EDGE와 통합방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 L-SAM 계약 관련 체계통합 업체로 기대되는 만큼 연내 UAE 향 방공망 수출이 가능할 전망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AE와 한국의 방산 협력 구체화 시 K9, 천무 등 지상무기에 대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27년 폴란드 K9 EC3, 미국 궤도형 자주포 및 탄약운반차(K10), 사우디 MNG 등 대형 파이프라인이 대기중인 만큼 올해 스페인 K9, 미국 차륜형 자주포에 이어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
- 현대로템: 연내에는 신규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내년 페루, 이라크, 루마니아 K2 수출 지속 추진
- 중동전쟁으로 이연된 이라크 K2, 사우디 MNG 등도 종전 이후 재개될 것으로 판단. 27년에는 방공망을 포함한 지상무기체계 전반에서 중동향 수주가 본격화될 전망
- 실적 부진으로 주가와 멀티플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나 수주 성장성을 감안하면 현 수준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 수주가 구체화되는 기업부터 분할 매수를 추천
- Top Pick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차선호주: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표1 3Q26 방산 5사 컨센서스 상/하회 여부

구분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	LIG D&A
매출액	하회	하회 (필리제외)	하회	하회	하회
영업이익	하회	상회	상회	하회	하회
순이익	하회	하회	하회	하회	하회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당사 추정치 기준 27,28F P/E

구분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KAI	한화에어로	LIG D&A
27F	7.5	20.9	21.6	12.5	14.6
28F	8.1	17.9	17.6	10.2	10.8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표3 현대로템 3Q26 실적 Review

(십억원, %)	3Q26P	3Q25	2Q26	YoY	QoQ	DS 추정치	차이 (%, %p)	컨센서스	차이 (%, %p)
매출액	1,620.7	1,619.6	1,606.0	0.1	0.9	1,734.5	-6.6	1,786.0	-9.3
RS	656.1	540.6	584.8	21.4	12.2	609.1	7.7		
AD&RH	841.2	936.1	918.9	-10.1	-8.5	981.0	-14.3		
EP	123.4	142.9	102.3	-13.7	20.6	144.3	-14.5		
영업이익	247.1	277.7	232.4	-11.0	6.3	266.6	-7.3	273.7	-9.7
RS	5.9	7.1	3.7	-16.4	59.5	3.0	93.7		
AD&RH	236.0	263.8	224.8	-10.6	5.0	254.9	-7.4		
OPM(%)	*28.0*	*28.2*	*24.5*	-0.1	3.6	*26.0*	2.1		
EP	5.2	6.9	3.9	-24.5	33.3	8.7	-40.0		
OPM(%)	*15.2*	*4.8*	*14.5*	10.4	0.8	*15.4*	-0.1	*15.3*	-0.1
지배주주순이익	176.6	198.5	185.3	-11.0	-4.7	218.1	-19.0	204.5	-13.6
NPM(%)	*12.5*	*12.3*	*11.6*	0.3	0.9	*12.6*	-0.1	*11.5*	1.1

자료: 현대로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한화시스템 3Q26 실적 Review

(십억원, %)	3Q26P	3Q25	2Q26	YoY	QoQ	DS 추정치	차이 (%, %p)	컨센서스	차이 (%, %p)
매출액	831.6	807.7	1,117.6	3.0	-25.6	974.1	-14.6	1,069.7	-22.3
방산	617.4	481.4	700.6	28.3	-11.9	544.0	13.5		
ICT	212.6	155.7	187.3	36.5	13.5	188.4	12.8		
기타 (구 필리)	1.6	170.6	229.7	-99.1	-99.3	241.7	-99.3		
영업이익	99.1	20.6	103.7	381.2	-4.4	27.7	257.9	61.8	60.4
방산	76.0	49.8	103.7	52.6	-26.7	24.5	210.2		
OPM(%)	*12.3*	*10.3*	*14.8*	2.0	-2.5	*4.5*	7.8		
ICT	24.0	12.0	20.8	100.2	15.5	13.2	82.0		
기타 (구 필리)	-0.9	-41.2	-20.8	-97.8	-95.7	-10.0	적지		
OPM(%)	*11.9*	*2.6*	*9.3*	9.4	2.6	*2.8*	9.1	*5.8*	6.1
지배주주순이익	38.6	155.0	67.1	-75.1	-42.5	42.3	-8.8	44.6	-13.5
NPM(%)	*4.6*	*19.2*	*6.0*	-14.6	-1.4	*4.3*	0.3	*4.2*	0.5

자료: 한화시스템,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Q26 실적 Review

(십억원, %)	3Q26P	3Q25	2Q26	YoY	QoQ	DS 추정치	차이 (%, %p)	컨센서스	차이 (%, %p)
매출액	6,094.4	6,486.5	9,292.9	-6.0	-34.4	7,150.7	-14.8	7,427.2	-17.9
지상방산	1,245.5	2,109.9	2,107.5	-41.0	-40.9	2,069.0	-39.8		
항공우주	659.9	604.0	760.0	9.3	-13.2	706.6	-6.6		
한화시스템	831.6	807.7	1,117.6	3.0	-25.6	974.1	-14.6		
한화오션	3,413.9	3,023.4	5,443.2	12.9	-37.3	3,491.1	-2.2		
영업이익	*452.0*	839.6	1,365.4	-46.2	-66.9	980.5	-53.9	1,152.1	-60.8
지상방산	21.7	572.5	533.0	-96.2	-95.9	475.9	-95.4		
지상방산 OPM (%)	*1.7*	*27.1*	*25.3*	-25.4	-23.6	*23.0*	-21.3		
항공우주	-2.4	3.1	37.0	적전	적전	7.0	적전		
한화시스템	99.1	20.6	103.7	381.2	-4.4	27.7	257.9		
한화오션	485.7	289.8	736.1	67.6	-34.0	500.0	-2.9		
OPM (%)	*7.4*	*12.9*	*14.7*	-5.5	-7.3	*15.0*	-7.6	*15.5*	-8.1
지배주주순이익	-137.1	486.5	636.4	-128.2	-121.5	539.0	-125.4	640.8	-121.4
NPM (%)	*-2.2*	*7.5*	*6.8*	-9.8	-9.1	*7.5*	-9.7	*8.6*	-10.9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6 한국항공우주 3Q26 실적 Review

(십억원, %)	3Q26P	3Q25	2Q26	YoY	QoQ	DS 추정치	차이 (%, %p)	컨센서스	차이 (%, %p)
매출액	1,064.3	702.1	1,167.9	51.6	-8.9	1,113.3	-4.4	1,178.6	-9.7
국내사업	493.7	269.3	496.5	83.3	-0.6	594.8	-17.0		
완제기수출	291.4	163.8	363.3	77.9	-19.8	233.6	24.7		
기체부품	262.8	245.0	284.7	7.3	-7.7	259.7	1.2		
연결반영	16.4	24.0	23.4	-31.7	-29.9	25.2	-34.9		
영업이익	79.4	60.2	48.4	31.9	63.9	69.0	15.1	75.3	5.4
영업이익률 (%)	*7.5*	8.6	4.1	-1.1	3.3	6.2	1.3	6.4	1.1
지배주주순이익	20.4	38.8	35.9	-47.5	-43.1	44.6	-54.3	47.6	-57.1
순이익률 (%)	*3.1*	5.5	3.1	-2.5	0.0	4.0	-0.9	4.0	-1.0

자료: 한국항공우주,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7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3Q26 실적 Review

(십억원, %)	3Q26P	3Q25	2Q26	YoY	QoQ	DS 추정치	차이 (%, %p)	컨센서스	차이 (%, %p)
매출액	1,071.2	1,049.2	1,113.5	2.1	-3.8	1,260.3	-15.0	1,164.6	-8.0
내수	853.8	862.1	828.3	-1.0	3.1	964.4	-11.5		
수출	217.4	187.1	285.2	16.2	-23.8	295.9	-26.5		
영업이익	67.6	89.6	106.0	-24.5	-36.2	97.0	-30.3	110.5	-38.8
영업이익률 (%)	*7.7*	8.5	9.5	-0.8	-1.8	7.7	0.0	9.5	-1.8
지배주주순이익	-4.6	59.3	82.6	-107.7	-105.6	86.6	-105.3	91.9	-105.0
순이익률 (%)	*-0.4*	5.7	7.4	-6.1	-7.8	6.9	-7.3	7.9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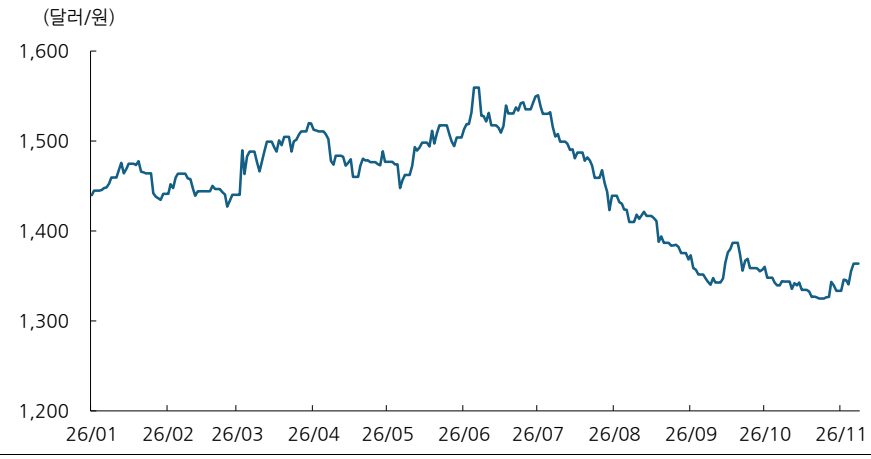
자료: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8 방산 5사 2026년 수출 완료항목 및 파이프라인 정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목	국가	예상 금액(조원)	비고	예상 시점
K9MH	미국	0.4	시제품계약, 수주 완료	
K9	스페인	2.5	수주 완료, 금액 미공개로 추정치	
천무	크로아티아	0.6	수주 완료	
K9	에스토니아	0.4	기존 운용국의 추가 구매 기대	4Q
L-SAM	UAE	2		11 월
K9	UAE	2.5	현지생산 추진 예정	11 월
	총합	9.4		
LIG D&A				
항목	국가	예상 금액(조원)	비고	예상 시점
천궁-2	카타르	1.5		4Q
천궁-2	쿠웨이트	1.5		4Q
천궁-2	UAE 추가	1		11 월
	총합	4		
한국항공우주				
항목	국가	예상 금액(조원)	비고	예상 시점
KF-21	인도네시아	4		4Q
FA-50	페루	1		4Q
	총합	5		
한화시스템				
항목	국가	예상 금액(조원)	비고	예상 시점
L-SAM	UAE	4		11 월
K2 사격통제시스템 등	-	0.2	수주 완료 추정(백지공시), 금액은 추정	
K2 사격통제시스템 등	-	0.2	수주 완료 추정(백지공시), 금액은 추정	
	총합	4.4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그림1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LIG D&A 입찰제한 심리 판단 유보…K-방산, 여파 촉각

- 법원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 가운데 국내 방산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LIG D&A가 방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보
-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LIG D&A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처럼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지만, 기각될 경우 즉시 2년간 국내 공공 무기체계 사업 입찰이 제한
-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 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29일 체계종합 분야 우선협상대상자로 LIG D&A를 선정
- 국산 전투기의 핵심 무장을 확보하는 중대한 프로젝트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연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
- 업계 일각에서는 방사청의 성급한 고강도 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짙음
-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 진행 상황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

URL: https://bit.ly/4figEqW

한화에어로, 폴란드에 첫 해외 유도미사일 공장 착공…유럽 방산 거점 구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폴란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에서 현지 방산기업 WB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 HWBAS의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힘
- 이번 공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에 구축하는 첫 유도미사일 생산시설
- 공장은 약 116만㎡ 부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급 유도미사일(CGR-080)을 생산할 예정
- 생산설비 구축과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을 거쳐 2029년 말 초도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감
-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9월 WB그룹과 지분 51대 49의 합작법인 HWBAS 설립 계약을 체결
- 지난해 12월에는 폴란드 군비청과 약 40억달러(약 5조 6,000억원) 규모의 천무 유도미사일 공급계약도 체결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폴란드군의 수요에 따라 현지 생산 제품을 다양한 사거리의 유도미사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과 천무를 통해 확보한 유럽 시장 기반에 유도미사일 현지 생산 역량을 더해 장기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

URL: https://bit.ly/4BRdvYO

차륜형 따낸 한화 K9, 궤도형도 잡나…美 자주포 시장 '두 번째 문'

- 4일 미국 연방조달시스템에 따르면 미 육군 디트로이트 조달사령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궤도형 기동전술포(MTC-T)와 궤도형 탄약보급차량(RSV-T) 관련 제안 모집 공고를 게시
- 미 육군은 기존 생산라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성숙한 155㎜ 궤도형 자주포를 요구
- 시험과 안전성 평가 등에서도 신뢰할 만한 실적을 갖춰야 함
- 새로운 설계뿐 아니라 실제 제작·시험 경험을 주요 조건으로 내건 것
- 이번 절차에서는 1곳 이상과 시제품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미 육군은 제안 업체 가운데 일부만 선정하거나 아무도 선정하지 않을 권리도 명시
- 미국 군사전문매체 브레이킹디펜스의 지난달 9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스미스 한화 미국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육상체계 부문 사장은 K9A1과 K9A2를 제안 후보로 검토한다고 설명
- 스미스 사장은 K9A1의 공급 가능성과 비용 경쟁력을 강조
- K9A2는 자동장전 등 자동화 기능을 높여 발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운용 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성능을 개선한 모델
- 탄약보급차량도 이번 모집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K9에 탄약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보유
-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미국 자회사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 미 육군이 두 사업을 병행하는 이유는 지원할 부대와 운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
- 미 육군 화력사업당국은 브레이킹디펜스에 차륜형은 견인포 운용 부대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이고, 궤도형은 기갑부대 운용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

URL: https://bit.ly/4sTm1Tq

KAI, 모로코에 공중급유형 FA-50 제안 "노후기 40대 대체"

- 방산 전문 웹사이트 디펜스워룸에 따르면, KAI의 모로코 마케팅 담당자는 모로코 공군의 노후 F-5 전투기와 알파젯(Alpha Jet)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FA-50과 T-50으로 구성된 대규모 혼합 편대를 제안했다고 밝힘
- 특히 모로코에 인도될 기체에는 작전 반경을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봉이 장착될 것이라고 설명
- 현재 모로코 공군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미국제 F-5E/F 타이거 II 전투기 20여 대와 프랑스제 알파젯 훈련기 20여 대의 퇴역을 앞두고 대체 기종을 물색
- 알제리와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로코는 2026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7.7% 늘어난 153억 달러(약 21조 4,200억원)로 책정하며 공군력 현대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활한 사하라 사막 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모로코 공군 입장에서 체공 시간을 늘려주는 공중급유 기능은 필수적인 요구 사양
- 무엇보다 모로코가 최근 최신형 F-16 블록 72를 25대 추가 주문하는 등 F-16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KAI에 유리하게 작용
- FA-50은 F-16과 부품 호환성이 약 70%에 달해 조종사 훈련과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앞서 KAI는 지난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에어쇼에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FA-50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현지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

URL: https://bit.ly/4j4YkE4

▪ 글로벌 방위산업 주요 News

당사 의견은 기울임체로 표시

키이우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군사 통신을 위해 자체 개발한 스타링크 버전을 사용

-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가 이미 자국산 스타링크라고 불리는 새로운 라스베트 위성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군사 통신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격 드론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파 방해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힘
-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라스베트 위성 32개를 궤도에 진입
- 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있는 1만 개 이상의 위성 중 극히 일부에 불과
- 모스크바는 2026년 말까지 라스베트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여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고, 점진적으로 완전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라고 모스크바 통신규제기구(GUR)는 서면 성명을 통해 밝힘
- 우크라이나 정부 대변인 안드리 유소프는 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상공에서 '라스베트' 위성 시스템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습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스타쉴드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해제
- 올해 들어 전선에서의 러시아의 영토 확장은 사실상 정체되었지만, 러시아는 요격이 더욱 어려운 차세대 제트 추진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전력 기반 시설과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강화

URL: https://bit.ly/4BRMm8k

유럽군,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 대비 폴란드에서 훈련 실시 예정

-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이번 주, 수천 명의 유럽군이 다음 주 폴란드 에 집결하여 '자발적 연합군'의 첫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 훈련은 러시아 와의 전쟁이 종식된 후 우크라이나 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 위한 예행연습
- 이번 훈련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11월 10일과 11일 아부다비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실시됐다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월요일 밝힘
- 영국과 프랑스는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코알리차 26.2' 훈련을 공동으로 주도하며, 이 훈련에는 11개국 2,800명의 병력이 참여하여 다국적군 우크라이나 지부(MNF-U)의 지휘 하에 폴란드, 프랑스, 터키에서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
-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도 참가
- 프랑스 외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광범위한 안보 보장의 일환으로 주요 기반 시설 보호, 우크라이나군 훈련, 제공권 보호 지원, 흑해 기뢰 제거 등 향후 임무 수행을 위한 병력 준비를 위한 것
-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군-우크라이나(MNF-U)는 평화 유지 또는 휴전 감시 임무를 갖지 않으며 나토 지휘 하에 작전하지도 않을 것
- 이번 훈련 발표에는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병력의 최종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올해 초 각각 약 5,000명의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지난해 최소한의 '경계 태세'만 갖추더라도 1만 명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추산

URL: https://bit.ly/4BOyLyv

스위스, 추가 방공 시스템 도입을 위해 바라크 MX와 SAMP/T NG 최종 후보 선정

- 스위스는 장거리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 후보를 바라크 MX와 SAMP/T NG로 좁혔으며,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기존 주문을 유지
- 정부는 방공 범위 확대를 통해 특정 공급업체 또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 연방 의회는 10월 28일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의 4개 제조업체로부터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한 후 두 후보를 선정
- 또한 국방부에 이스라엘의 바라크 MX와 프랑스의 SAMP/T NG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
- 해당 평가에는 외교 및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 조달 및 안보 고려 사항이 포함될 것
- 정부는 추가 조사와 의회의 군사 예산 승인 결정 이후 2027년 초에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
- 연방 의회는 악화되는 지정학적 상황에 대응하여 스위스가 더욱 강력한 방공망과 충분한 탄약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힘
- 장거리 방어 시스템은 단거리 및 중거리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전투기와 함께 운용되어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원거리 공격에 대응할 것
- 정부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대안 없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도입을 취소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스위스 당국은 지연과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워싱턴과 물자 공급 방식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
- 의회는 2026년 겨울 회기 동안 군 예산에 240억 스위스 프랑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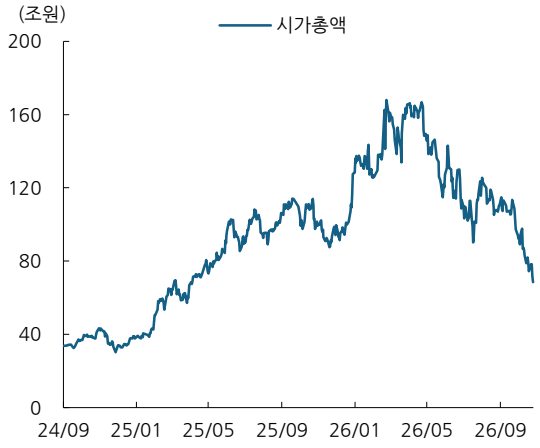
URL: https://bit.ly/4zgZMZH

영국, 2030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 3% 설정

- 영국은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늘리고,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35년에는 3.5%까지 추가 증액할 계획
- 존 힐리 국방장관은 10월 28일 투자 유치 및 유럽 파트너와의 국방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이러한 목표를 발표
- 이번 약속은 최근 발표된 국방 투자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함
- 혁신적인 국방 재정 조달을 위한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영국 국방 분야에 더 많은 민간 및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주력할 것
- 또한 국부펀드와 영국 비즈니스 은행은 향후 4년간 영국 안보를 지원하는 활동에 최대 50억 파운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영국은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와 공동 조달, 군사 시스템 개발 및 공동 생산품 시장 개척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
-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0억 파운드의 지원금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또한 롤스로이스가 설계할 수 있는 이중 용도 가스 터빈의 연구 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며, 이 터빈은 향후 10년간 약 25억 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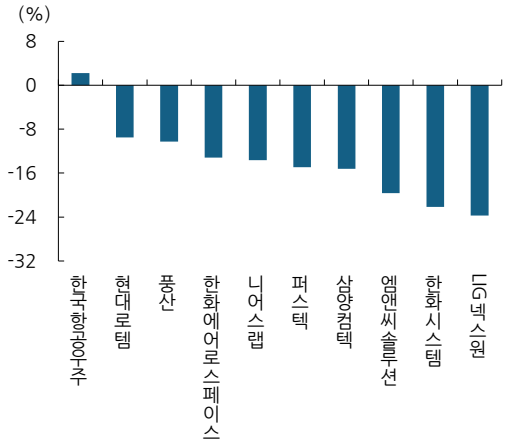
URL: https://bit.ly/4BEfHCS

그림2 방산 5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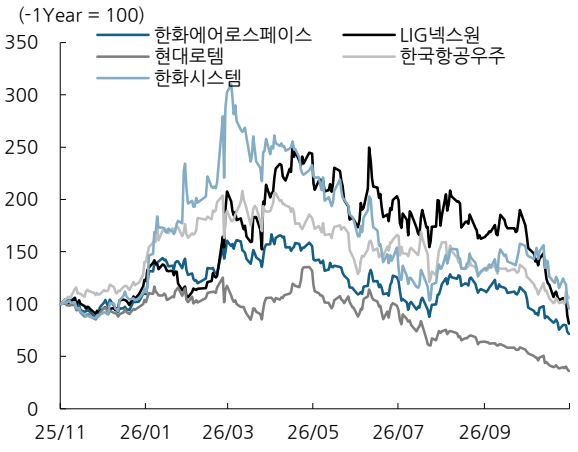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방산 주요 기업 1W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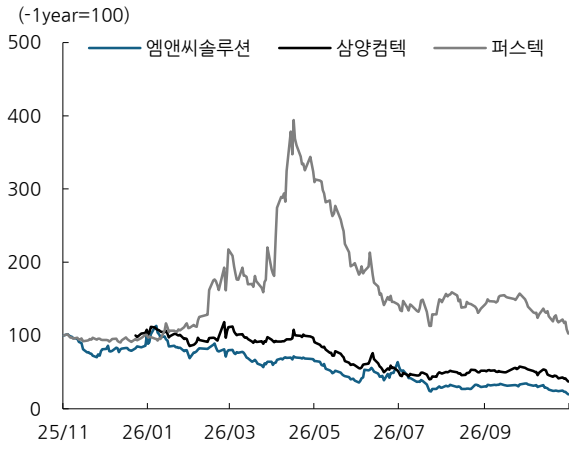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방산 5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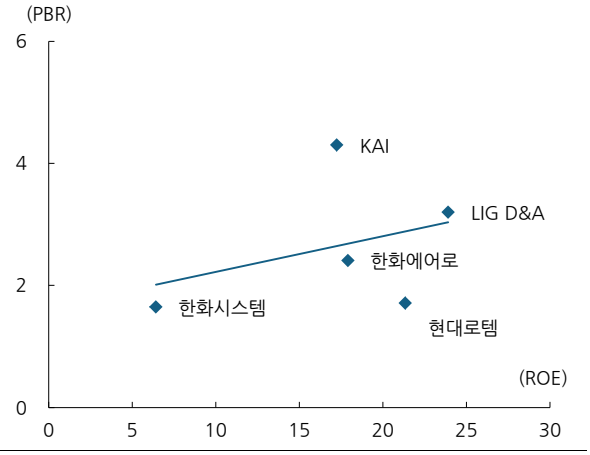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방산 주요 부품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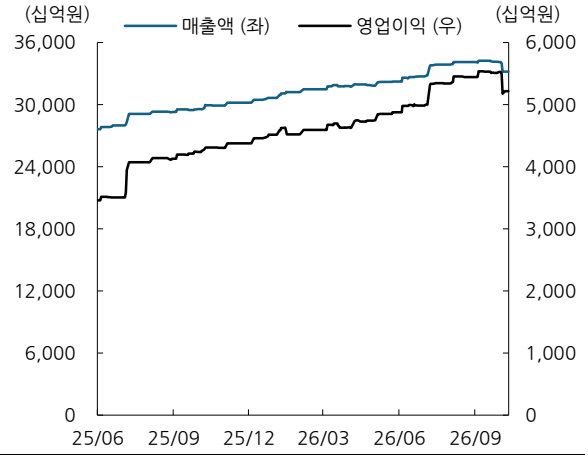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방산 5사 12M Fwd PBR-ROE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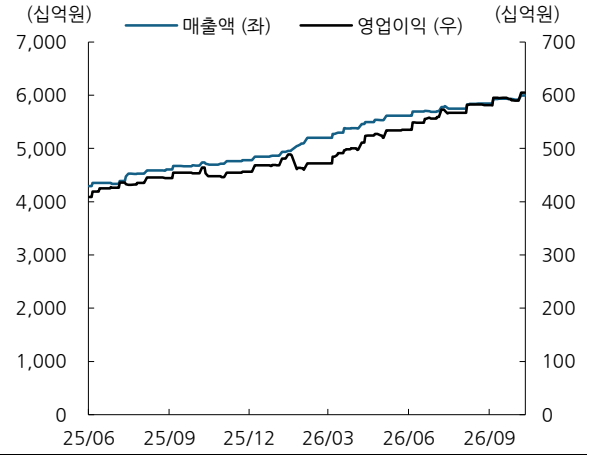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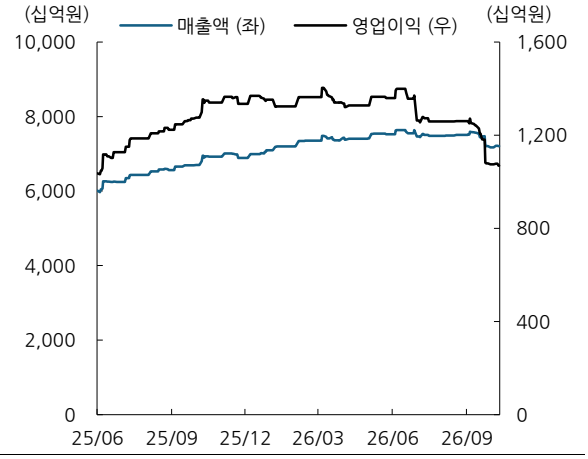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LIG D&A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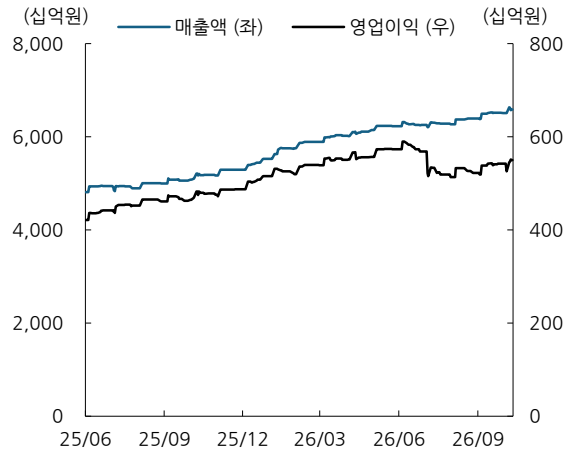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현대로템 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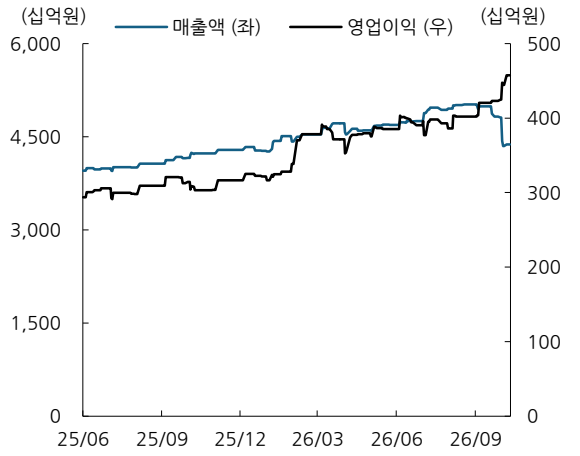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한국항공우주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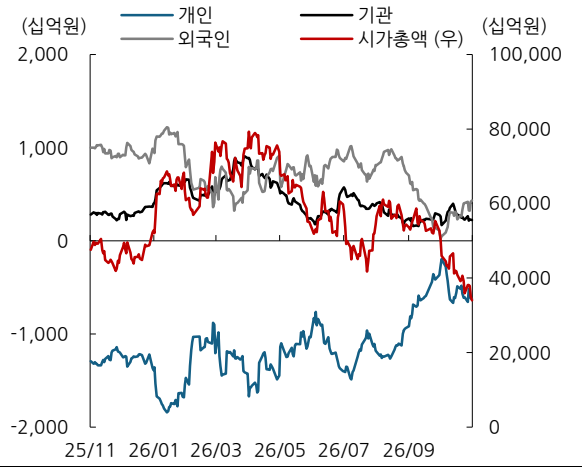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한화시스템12M Fwd 실적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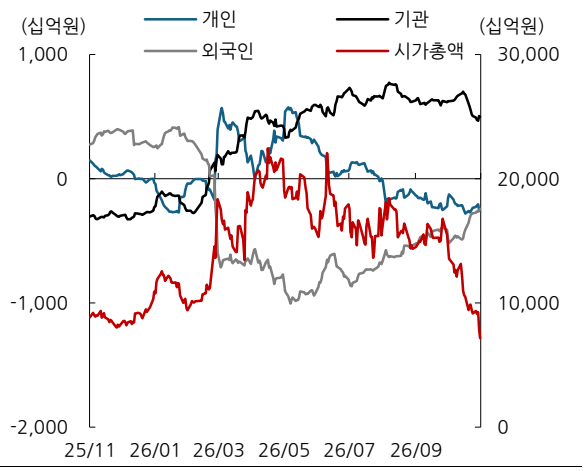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한화에어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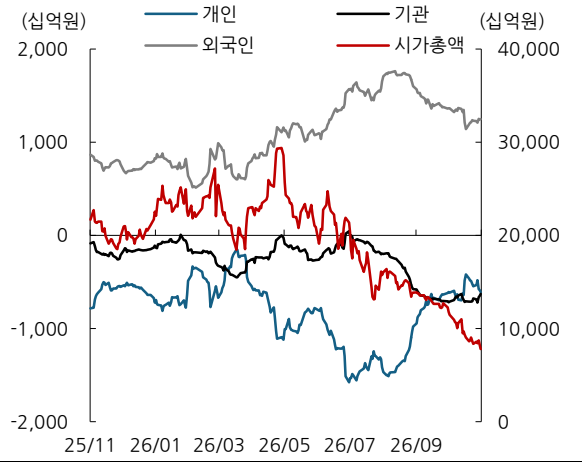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LIG D&A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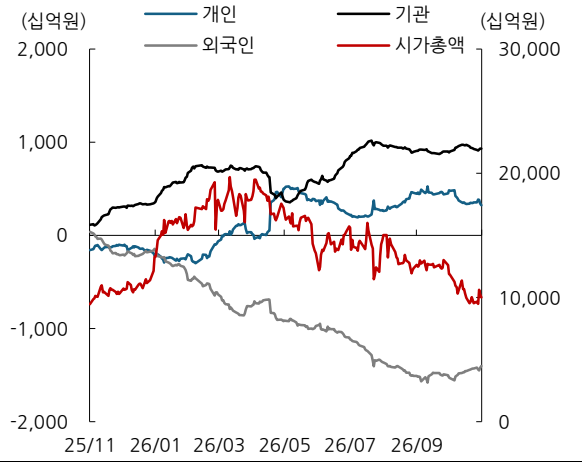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현대로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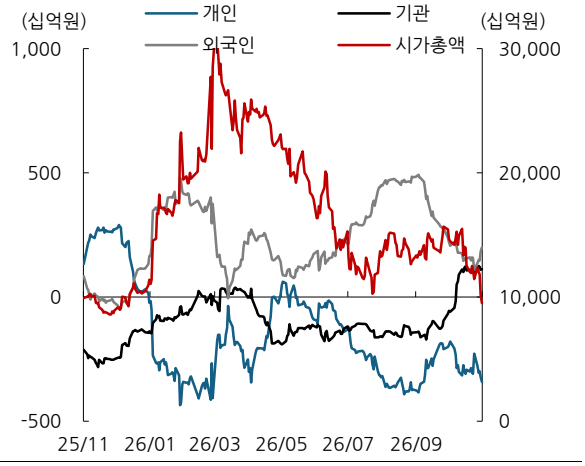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한국항공우주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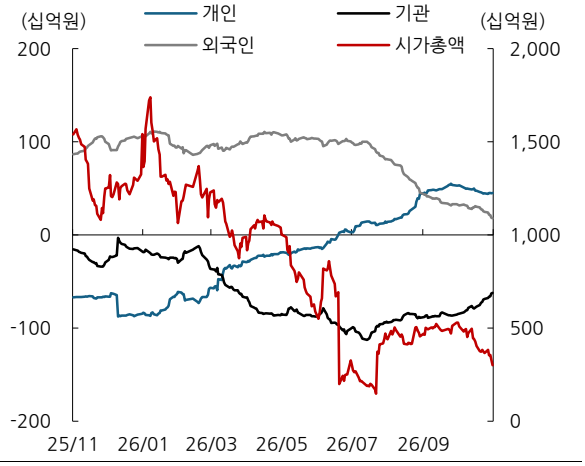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한화시스템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엠앤씨솔루션 52주 누적 순매수 대금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